



안병록 BBS 포교사업국장(가운데)과 강민구 포교사가 사경집 이운식 등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현장속으로

BBS 포교사업단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수행현장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탤런트 이정길·김혜옥씨.

“신묘장구대다라니로 활력 충전~”

흥천 연업산 연화사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연업산 자락에 자리한 연화사는 신홍 사찰로 통양최대 36m 아미타대불이 모셔진 극락도량이다.

99개 봉우리가 연꽃잎을 닮은 연업산에서 연화사는 그 중앙인 연봉우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도선 국사가 비보사찰지로 선남선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이 곳은 기운이 너무 강해 연합절 굴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존돼 왔다고 전해진다. 주지 화담 스님(사진)이 1993년 불사를 시작해, 대지 일만 평에 큰법당을 불사했으며, 3층 법당에는 부처님 7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9분이 모셔져 있다. 연화사 아미타대불은 아파트 12층 높이로 몸 속 복잡으로 7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7층 미타삼존불 법당까지 계단을 따라 부모은중경도와 극락도,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주지 화담 스님은 “불사를 하는 인연이 따로 있고, 성불하는 인연이 따로 있다”며 불자들과 선연이 맺어지기를 바랐다.

“지심귀명례~제망찰해 삼계도사...”

11월 8일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전 7시 40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예불 소리가 들린다. 흔들리는 차안에서도 다섯 대에 나눠 탄 200여 불자의 마음은 부동이다. 불교방송 포교사업단이 주관해 2005년 4월 팔만대장경 조각원찰 강화 선원사에서 시작된 ‘BBS 신묘장구대다라니 1만독 철야정진’이 제54차 순례로 흥천 연화사를 찾은 것이다. 손을 잡고 함께 온 중년의 부부부터 노모를 모시고 온 보살까지, 오랜 기간 함께 정진해 온 동반들, 새로운 법우 할 것 없이 부처님 법을 나눈다.

버스 안에서 BBS포교사업단 팀장들은 바쁘다. 연신 위폐종이를 나눠주고 다시 받는다. 철야정진에는 다라니 정근뿐만 아니라, 천도제도 진행되기 때문. 특히 이번 철야정진은 생전예수제도 함께 봉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분주했다. 분주함 속에도 차는 강원도 단풍 속을 달린다.

“남편 귀가 늦어 된장 졸 듯이 마음이 졸아들 때 이 문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져 집안도 화목해집니다.”

피곤이 몰려올 즈음, 대중에게 한 줄기 웃음을 선사한 이는 안병록 BBS 포교사업국장이었다. 안 국장은 항상 마음을 다스려 귀의하라는 문구가 써진 다포를 보시하며 마음 씀씀이에 대해 설명한다. 안 국장은 “일팔의 사심이 있으면 공력이 창박 가을 산처럼 지옥문 앞에 쌓인다”며 무주상보시를 강조한다.

여차여차 정오가 다되어 갈 무렵, 차는 연화사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연화사 주지 화담 스님이 직접 마중 나와 보살들을 맞이한다. 여독을 풀어 점심공양을 마치고마자 입재식이 시작됐

다. 성관 스님의 천도법문에 이어 참가자 모두 잠시 입정의 시간을 가졌다.

“부처님이시여 일체제 일체제 일체중생의 번민과 고뇌를 잊어 주시옵고, 사랑과 평화를 갖게 하옵소서.”

발원문을 낭독한 참가대중은 도안 설호 혜강 무공 승우 해사 스님의 집전에 맞춰 진행된 예수재와 선망부모일체조상 천도재, 태장영가천도재, 수능합격천도재를 봉행했다. 정오부터 계속된 재는 저녁이 돼서야 끝을 맺는다. 긴 시간 동안 집전스님들은 계속 회심곡을 부르고, 법고춤과 바라춤을 추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에는 탤런트 김혜옥, 이정길씨와 새 박사 윤우부 교수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길씨는 “한국전쟁 때 태어나 아버지를 전란 속에 잃었다. 아버지 생각이 효보찰 응주사를 자주 찾곤 한다”며 “부처님 법과 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천도재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BBS라디오 진행 등 대표적인 연예인불자 김혜옥씨는 “최근 들어 바쁜 드라마 일정으로 신행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며 “첫째도 초심, 둘째도 초심으로 불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도재는 예수재함·사경집 이운식과 다비로 마무리됐다. 활황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재가 돼 하늘로 오르는 원들을 거대한 아미타대불은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녁공양을 마친 불자들은 다시 큰법당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늦춰지거나 가라앉은 정진분위기에는 어김없이 안병

록 국장이 나선다. “니만 좋나~내도 좋다” 구성진 목소리에 맞춰 참가불자들은 함께 노래한다.

“한 노보살이 스님이 빠르려 나뉘는자 연불을 하자 나만 좋다고 잘못 알아듣고 내도 좋다고 대꾸했다”며 “그런데 그 보살은 그 구절이 너무 좋아 흥이나 계속 연불하다. 건강하게 살다 좌탈입망했다”고 일화를 소개한다.

재미난 일화에 노래도 부르며, 한껏 웃은 불자들은 108독 주력정진에 들어간다. “나모라 다라니다 아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깊은 산속이라 해가 떨어지지 오래, 어두운 밤 속에는 독송소리만이 가득하다. 점차 빨라지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일어나 절하는 노보살부터, 불을 흘리는 젊은 보살까지, 다라니 정진으로 그동안 마음에 쌓인 모든 업장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봐도 먼지 몰라, 다만 계속 읽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일도 잘풀려.” 정진 직전 어느 보살은 주력정진에 대해 한마디로 말한다. 참석자들의 소망은 한결같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온중생의 안녕을 위한 발원이었다.

계속되는 독송에 시계바늘은 9월 새벽 3시를 가리킨다. 피곤함을 잊고 웃으며 회향 체조하는 모습에서 환의심이 느껴진다. 여명이 비추는 이틀만 6시, 뜨는 해를 뒤로 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노보살의 뒷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볼 수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ta@buddhapia.com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2009년 신상품!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이젠 바뀌어 합니다. 전자파 없는 잠자리로...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볼을 짹! 침솟을 곱꽂 채워~ 황토뜸질, 솟뜸질까지!

■규격 : 2인용 : 1450 X 2000
1인용 : 1000 X 2000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저로분할가 : 2인용 : 59,000원x5회
1인용 : 57,000원x5회

또 하나의 기술력!
온도감지 안전온용유리/ 과열방지센서 등~ 장수돌침대의 7중 첨단안전기술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래오래!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OK할때까지!!**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난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직도, 그 비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시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따고도!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써보고, 정말 좋다고 인정하신다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장수산업 수상내역

대한민국장수산업대상	INNOBIZ 우수기술혁신대상	국무총리상	국세청장상	수출진흥장	고려대학교장상
한국과학기술인대회	LIG 순재보상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서비스경영대상	기술혁신경영대상	특허등록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과학기술인대회	한국과학기술인대회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JANG SOO INDUSTRY CO., LTD.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 전화 080-788-7878 동 협 943-12-426130 조운성